

R290 냉매 가스 최적화 센서 MPS A3 출시 예정 !

냉매 가스는 저온의 물체에서 열을 빼앗아 고온의 물체에 열을 운반해주는 매체를 말하며,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냉난방기에서 온도를 제어하는 역할로 주로 사용됩니다.

기존 냉매로 사용하던 프레온가스(CFCs)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돼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후 친환경 냉매가스들(R32, R290)이 나오고 있습니다.

냉매 가스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모든 냉난방 공조 솔루션에는 측정 센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냉난방 시스템에 차세대 친환경 냉매인 R290을 대체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R32 냉매 대비 오존층 파괴지수, 지구 온난화지수가 낮아 훨씬 환경 친화적입니다.

이러한 R290에 최적화되어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MPS A3센서입니다.



- * UART 디지털 출력식으로 현장 교정 불필요
- * 10년 이상의 수명 지원
- * 매우 낮은 오탐률 (@15% LEL ±2.5%의 정확도)
- * 빠른 응답 시간
- * 정확한 센서 출력
- * 독극물 내성
- * 자체 테스트 기능 내장
- * 0~50% 범위 LEL 측정 (R290의 LEL은 약 2.1%)



※ LEL(Lower Explosive Limit)은 공기 중에서 폭발할 수 있는 최소 농도입니다.



다양한 환경 센서를 취급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www.allsensing.com
 070-4285-4018